

#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2021.5

엄근용

■ 문제 제기 .....	4
■ 국내 경제 현황과 재정정책 방향 .....	5
■ 적정 SOC 투자 규모 .....	11
■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	24



- 주요 기관들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은 2021년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현재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됨.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최근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으로 근절이 쉽지 않고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을 완화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이전지출에 집중되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SOC 투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 재무부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SOC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한 27.8조원 수준임. 하지만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25.8조원 규모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년(-0.4%)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1956~2017년까지 2.28~3.03% 비중을 유지함.
  - 영국은 2020~2021년 총예산을 1,000억 파운드에 상향하였으며,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 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균형 발전, 녹색산업 혁명,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함.
- 경제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됨.
  -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06, 2012)은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적정 SOC 스톡 규모를 추정했으며, 이는 2012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됨.
-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3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예상 지출 금액보다 약 1.7조원의 추가적인 SOC 투자가 필요함. 즉,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SOC 투자는 최소한 30조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역 간의 연결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프라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함.

## I 문제 제기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음.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및 고용 위축 등이 지속되고 있음.

- 2020년 GDP 성장률은 (-)1.0%를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보였으며, 2021년 GDP 성장률은 3.0%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4% 이상 지속되며, 실업급여 수급은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2021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초 일당 200~300명대에서 최근에는 500~60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SOC 투자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경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 역시 큰 폭으로 SOC 투자를 확대함.

- 최근의 연구들은 SOC 투자가 재정지출 승수뿐만이 아니라 고용 승수도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함.
- 미국은 1956년부터 지속적으로 SOC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함.
- 영국은 2020~2021년(회계연도) 자본지출 한도를 전년 대비 51% 증액한 약 1,000억 파운드에 하였으며, 올해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액할 계획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2022년도 적정 SOC 투자의 규모와 방향에 대해 검토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제의 현황과 재정정책 방향, 적정 SOC 투자 규모의 추정, 해외의 SOC 투자 동향을 분석할 것임.
- 이어 2022년도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SOC 투자 방향을 제시할 것임.

## Ⅱ 국내 경제 현황과 재정정책 방향

### 1. 국내 경제의 현황과 전망

■ 국내총생산은 금융위기 직후에도 (+) 성장률을 보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은 마이너스(-) 1.0%의 역성장을 보임.

- 경제 활동별로 살펴보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서 (-) 성장률을 보임.
- 특히, 건설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 성장률을 보임.

〈표 1〉 경제 활동별 실질국내총생산(2016~2020)

(단위 :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총생산(실질성장률)	2.9	3.2	2.9	2.0	-1.0
농림어업	-5.6	2.3	0.2	2.3	-3.4
제조업	2.3	3.7	3.3	1.3	-0.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2	6.2	-1.7	4.3	5.8
건설업	9.8	5.9	-2.8	-2.5	-0.9
서비스업	2.9	2.6	3.8	2.9	-1.1

자료 : 한국은행.

■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1년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은 2021년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이 낮고, 백신 접종이 예상대로 진행됨을 전제로 3.5% 상승을 전망함.
-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나, 민간소비 개선 지연으로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함.

〈표 2〉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기관	KDI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일	2020.11.11	2020.12.17	2021.2.25	2021.4.16	2021.4.15	2021.4.23
2021년	3.1%	3.2%	3.0%	3.4%	4.0%	3.5%
2022년	-	-	2.5%	-	2.5%	-

자료 : 각 기관.

**현재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됨.**

- 민간소비 지출은 2020년 4.9% 감소한 가운데 2021년 1/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부진, 코로나19 감염 우려 지속 등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이다.<sup>1)</sup>

〈그림 1〉 민간소비지출



자료 : 한국은행.

**고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전반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자 증가와 더불어 구직활동 위축으로 2021년 월별 실업률은 4%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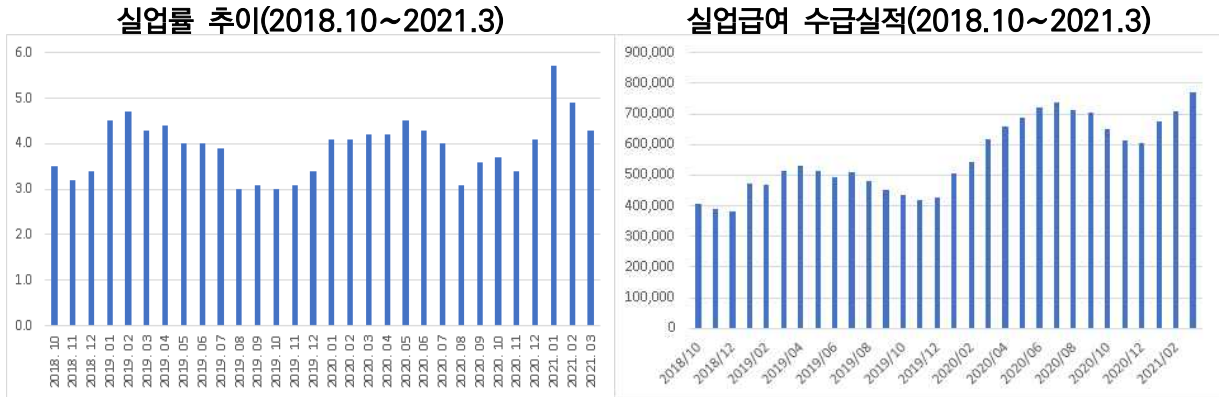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고용 회복이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생산 증가가 노동 수요로 잘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함.<sup>2)</sup>
- 실업률은 2021년 1월 5.7%, 2월 4.9%, 3월 4.3%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1~3월 수준과 비교하면 상승한 수준임.
- 실업급여 수급 실적은 2021년 월간 70만명 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3월과 비교 시 월간 20만명 이상 많은 수준을 보임.

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2.

2) LG경제연구원,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 2021.4.15.

〈그림 2〉 실업 현황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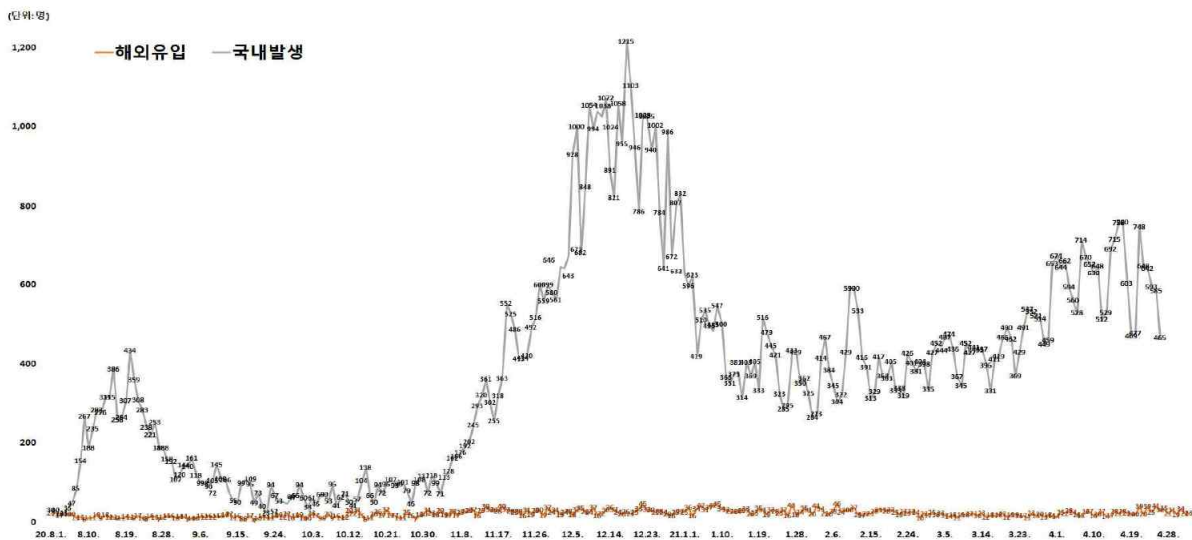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2020년 연말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초 일당 200~300명대를 보였으나, 최근 500~600명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만, 지난 1주간(2021.4.25.~2021.5.1) 국내 발생 확진자는 전주 대비 62.0명 감소함.
-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으로 코로나19의 근절이 쉽지 않고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2021.5.6).

〈그림 3〉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따른 일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2020.8.1~2021.5.3)



자료 : 질병관리청.

- 2022년 국내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나, 현재 민간소비 및 실업률 등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못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어 경제 예측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회복의 도모가 필요함.

## 2. 재정정책 방향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2021.4)<sup>3)</sup>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0년 중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거시경제 충격의 완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지원과 방역대책 등을 위해 2020년 추가경정예산은 4차례에 걸쳐 총 66.8조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3월에도 14.9조원이 편성됨.
  - 2020년 1~4차 추경과 2021년 1차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20년 0.5%p, 2021년 0.3%p의 효과가 있었고, 추가적인 재정지출 1원당 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함.

〈표 3〉 2020~2021년 국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도	회차	총 규모	세출확대		주요 내용
			세출확대	세입경정	
2020	1	11.7조원	10.9조원	0.8조원	방역대책, 민생지원 등
	2	12.2조원	12.2조원		민생지원(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 지원금)
	3	35.1조원	23.7조원	11.4조원	세입경정, 고용대책, 경기보강 등
	4	7.8조원	7.8조원		민생지원, 고용대책, 돌봄 지원 등
	계	66.8조원	54.6조원	12.2조원	
2021	1	14.9조원	14.9조원		민생지원,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총계		81.7조원	69.5조원	12.2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2021.4.30).

-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이전지출<sup>4)</sup>에 집중되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정부지출 항목별로 그 효과를 분석하면 정부소비 지출, 정부투자 지출, 이전지출 순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허진욱, 「코로나19 위기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21.4.30.

4)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 등이 해당됨.



- 이에 따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면 정부에 의한 직접소비와 SOC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과 같은 정부투자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sup>5)</sup>

**■ 영국 재무부(2021.3)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sup>6)</sup>**

- 인프라의 공급을 통해 다른 정부 정책 목표도 지원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과 건물에 대한 투자는 기술과 교육을 향상시키며, 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는 주택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 세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하게 함.

**■ 국회예산정책처(2016.11)<sup>7)</sup>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투입 단위당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재정지출 승수<sup>8)</sup>의 경우 첫째는 SOC와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누적치를 보면 SOC 분야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즉, 2017년의 경우 교통 및 물류 0.155에서 누적 0.490으로 3.1배 증가, 보건은 0.177에서 0.343으로 1.9배 증가함.

**〈표 4〉 SOC 및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승수 추이**

(단위 : 조원/조원)

재정승수	2017	2018	2019	2020	누적
교통 및 물류	0.155	0.176	0.088	0.048	0.490
국토 및 지역개발	0.127	0.129	0.064	0.035	0.371
보건	0.177	0.087	0.044	0.024	0.343
사회복지	0.113	0.017	0.008	0.004	0.144

자료 : 디지털예산시스템(dBrain) ; 국회예산정책처(2016.11), p.25.

- 고용 승수<sup>9)</sup>의 경우에는 첫째에는 보건·복지가 SOC 분야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누적치를 보면 SOC 분야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즉, 2017년의 경우 교통 및 물류 0.204에서 누적 1.009로 4.9배 증가, 보건은 0.296에서 0.721로 2.4배 증가함.

5)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이 추정한 지출 유형별 누적재정 승수를 보면, 정부의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구매의 경우 0.5~2.5, SOC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0.4~2.2인데 비해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은 0.4~2.1, 은퇴자에 대한 일회성 지출 0.2~1.0으로 분석되고 있음. 현진권 편,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 케인즈 정책의 한계」, 정책연구 2013-15, 한국경제연구원, 2013.12, pp.20~21.

6) HM Treasury, 「Build Back Better : out plan for growth」, 2021.3, pp.32.

7) 이강구 외,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 연구보고서 제21호, 국회예산정책처, 2016.11.

8) 재정정책의 효과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임.

9) 투자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 한 산업의 고용 증가가 그 파급효과로서 전체 산업에 얼마만큼의 고용 증가를 유발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임.

〈표 5〉 SOC 및 보건복지 분야의 고용 승수 추이

(단위 : 천명/조원)

재정승수	2017	2018	2019	2020	누적
교통 및 물류	0.204	0.421	0.218	0.111	1.009
국토 및 지역개발	0.190	0.301	0.159	0.080	0.770
보건	0.296	0.235	0.108	0.055	0.721
사회복지	0.239	0.046	0.020	0.009	0.319

자료 : 디지털예산시스템(dBrain) ; 국회예산정책처(2016.11), p.25.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뿐만 아니라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대를 위한 재정의 역할 중대가 필요함.

-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15년 2.8%를 거쳐 2019년 2.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제침체로 -1.0%를 기록함.
- 실업률은 2010년 3.7%, 2015년 3.6%, 2020년 4.0%이고, 2021년 1/4분기에는 5.0%를 기록하고 있는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함.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2년 재정지출 예산 수립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2021년 11월에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바, 집단면역이 차질없이 달성될 경우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

### 3. 시사점

2020년 대규모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면서 최근 각 경제분석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소비 및 실업률 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2020년 4차례의 추경과 2021년 상반기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이전 지출에 집중되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다른 분야보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SOC 분야의 투자 확대가 필요함.

### Ⅲ 적정 SOC 투자 규모

#### 1. SOC 예산 추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596.5조원으로, 2021년도 예산(558.0조원) 대비 6.9% 증가한 수준임.

-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인구구조 변화 대응투자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동력 확충, 안보,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안전 투자 지속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38.5조원 증액을 계획하고 있음.

〈표 6〉 2021년 분야별 예산 요구안

(단위 : 조원)

구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액(B-A)
◇ 총지출	512.3	558.0	596.5	38.5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7	217.4	17.7
2. 교육	72.6	71.2	74.2	3.0
3. 문화·체육·관광	8.0	8.5	8.8	0.3
4. 환경	9.0	10.6	11.4	0.8
5. R&D	24.2	27.4	29.1	1.7
6. 산업·중소·에너지	23.7	28.6	32.3	3.7
7. SOC	23.2	26.5	27.8	1.3
8. 농림·수산·식품	21.5	22.7	23.0	0.3
9. 국방	50.2	52.8	56.1	3.3
10. 외교·통일	5.5	5.7	6.0	0.3
11. 공공질서·안전	20.8	22.3	22.8	0.5
12. 일반·지방행정	79.0	84.7	87.6	2.9

주 : 2020, 2021년은 국회 확정 예산이며,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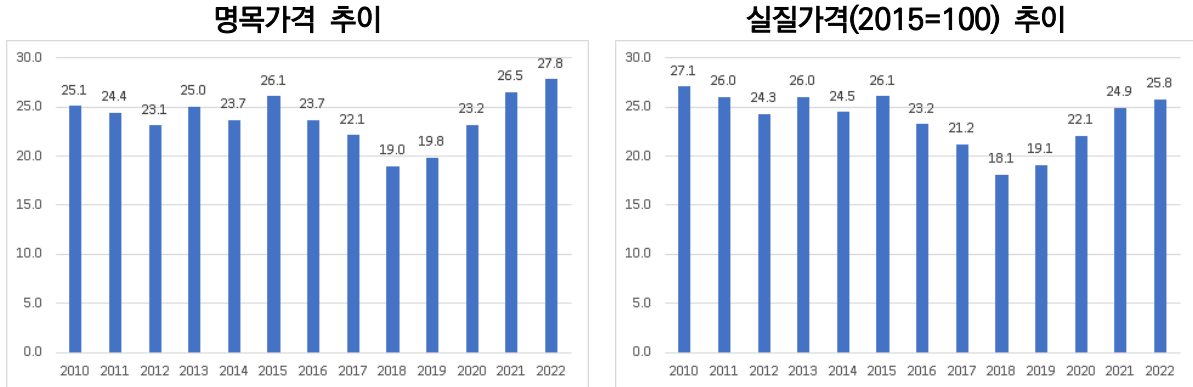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SOC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한 27.8조원임. 이를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25.8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SOC 예산은 명목가격으로 전년 대비 1.3조원이 증가하나, 실질가격으로는 0.9조원 증가에 불과함.
- 실질가격 기준 2022년 SOC 예산은 25.8조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SOC 예산 27.1조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그림 4〉 정부 SOC 예산 추이

(단위 : 조원)



주 : 실질가격은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2015=100)를 사용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은 물가상승률 전망치 1.3%, 1.4%로 가정함.

자료 : 기획재정부 각 연도 보도자료.

## 2. 국내외 SOC 투자 동향

### (1) OECD

-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높은 교통 SOC 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투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SOC 투자에 있어 OECD 평균(약 0.9%)을 소폭 상회하고 있으나, 유지보수 투자는 OECD 평균(약 0.44%)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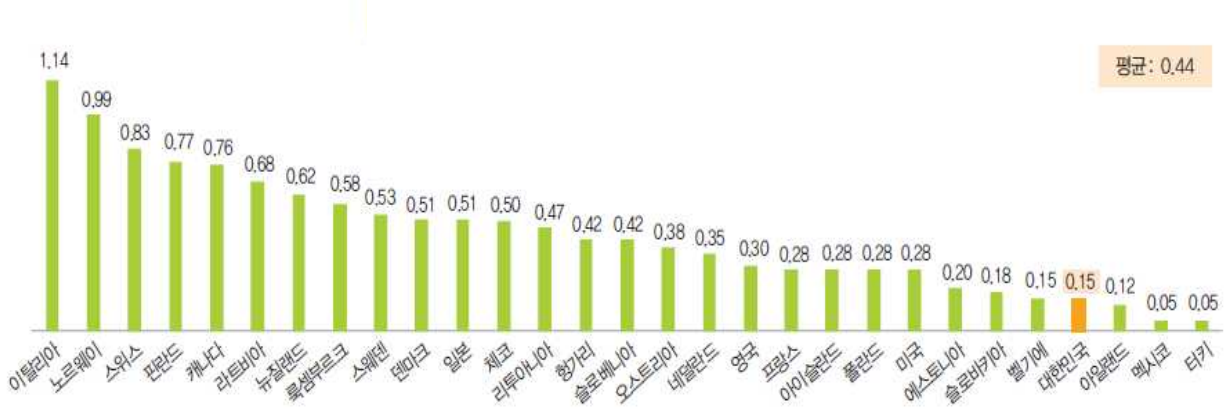
〈그림 5〉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비중(1995~2016)



주 : 교통 SOC 투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에 투자한 금액임.

자료 : 국토연구원(2019),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그림 6〉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교통 SOC 유지보수 금액 비중(199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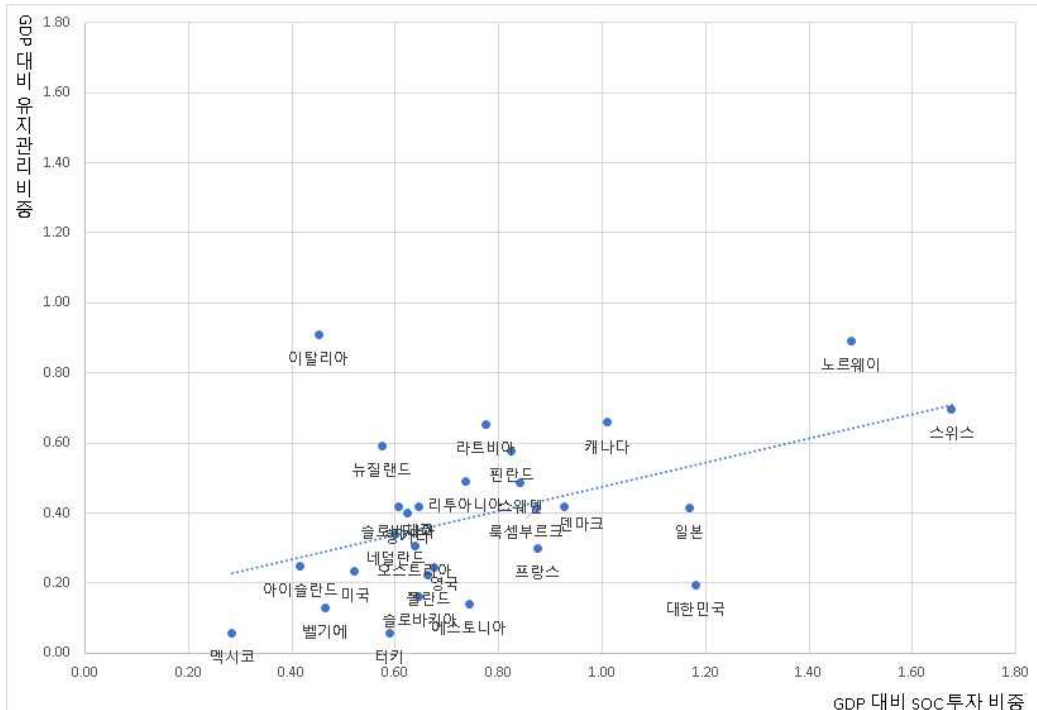


주 : 교통 SOC 투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에 투자한 금액임.

자료 : 국토연구원(2019),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SOC 투자와 유지관리 투자 비중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며, GDP 대비 SOC 투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 대비 유지관리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임

〈그림 7〉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SOC 투자와 유지관리 투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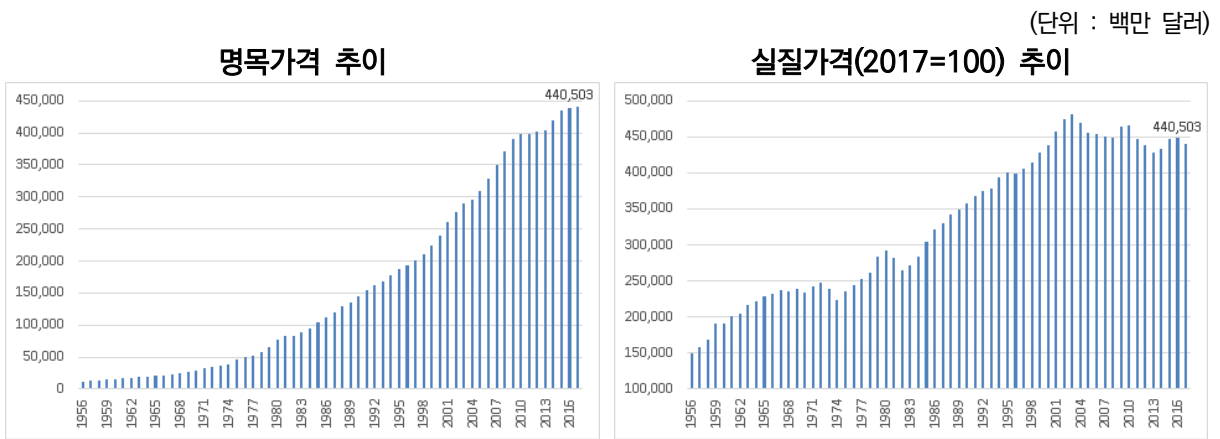
주 : 국토연구원(2018),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2) 미국

■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년 112.7억 달러에서 2017년 4,405.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약 6.3%씩 증가함.

- 미국의 명목가격 기준 SOC 예산은 1956~2017년까지 전년 대비 2011년(-0.4%) 한 번을 제외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그림 8〉 미국 SOC 예산 추이(195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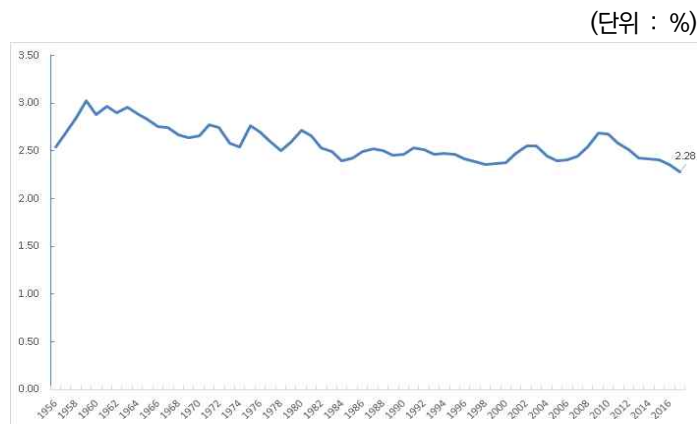


주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상하수도 등 예산의 합임.  
 자료 : Congress Budget Office(2017), Budget and Economic Data.

■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1956~2017년까지 2.28~3.03% 비중을 유지함.

- 미국 GDP 대비 SOC 예산 평균 비중은 2.58% 수준을 보임.

〈그림 9〉 미국 SOC 예산의 GDP 대비 비중(195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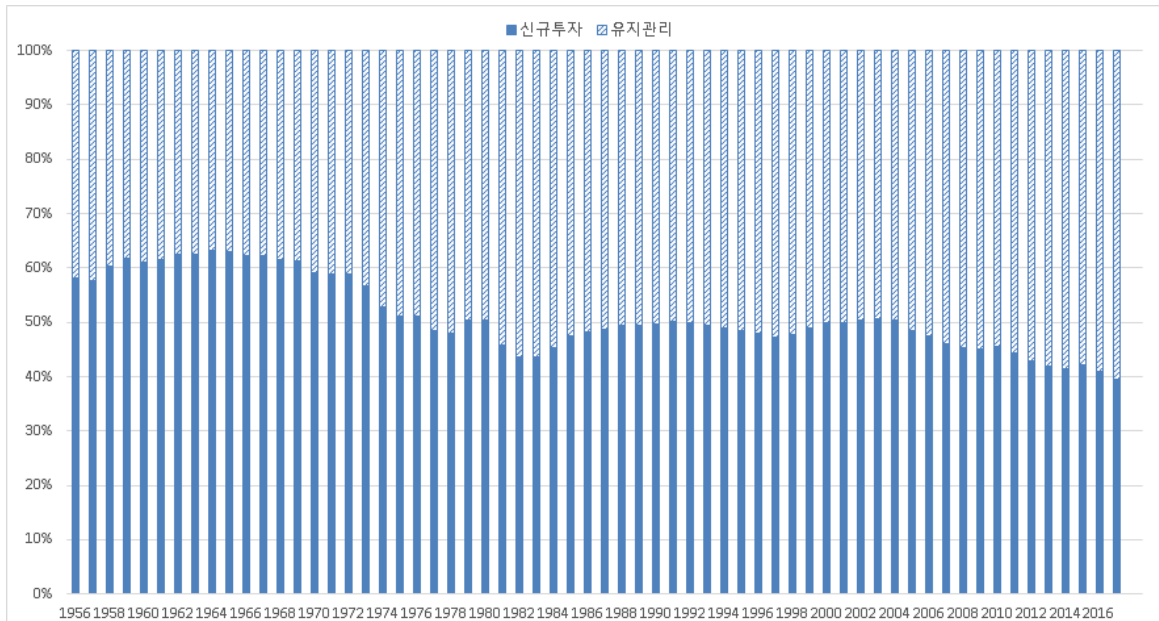


자료 : Congress Budget Office(2017), Budget and Economic Data.

❖ 미국의 SOC 예산의 신규 투자와 유지관리 비율은 점점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유지관리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SOC 예산에서 신규 투자 비중은 1978년 이후 5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0〉 미국 SOC 예산의 신규/유지관리 비율



자료 : Congress Budget Office(2017), Budget and Economic Data.

❖ 최근 미국은 연구개발과 제조업(Research and development, manufacturing), 돌봄 경제(Care economy), 주거 인프라('At home' infrastructure), 그리고 운송 인프라(Infrastructure)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약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4월 1일 발표함.

- 전체 투자금액 중 가장 높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운송 인프라에서는 고속도로, 교량 등을 포함한 2만 마일에 이르는 시설의 개선과 공항 등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 전기차 전환 가속화 등에 6,21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함.
-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해 4,000억 달러를 배정함.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3,00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 친환경 에너지 사업 촉진 등을 위해 투자할 계획임.
- 200만호 이상의 주택 건설 및 상업시설 보수를 위해 약 2,1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50만호의 신규 주택 건설이 포함됨.

- 1,800억 달러는 핵심 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 인프라 고도화에 사용될 계획이며, 청정에너지 개발과 기후 변화 대응 연구에 집중될 전망이다.
- 상수도 개량, 납 파이프와 서비스 라인 교체 등을 위한 상수도 개선을 위해 1,110억 달러가 배정됨.
- 이 외에 공립학교 건설과 보수, 전국에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실직 근로자 등 재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각각 1,000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주택 보수와 지역 대학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서도 1,260억 달러가 배정됨.

### (3) 영국

■ 영국은 2021~2022년(회계연도 기준, 2021.4~2022.3)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과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공개함.

-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국민들의 삶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 지속
- 부실해진 재정(public finance)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회귀시키기 위한 조치 시행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2020~2021년(회계연도 기준)에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CDEL)<sup>10</sup>를 1,000억 파운드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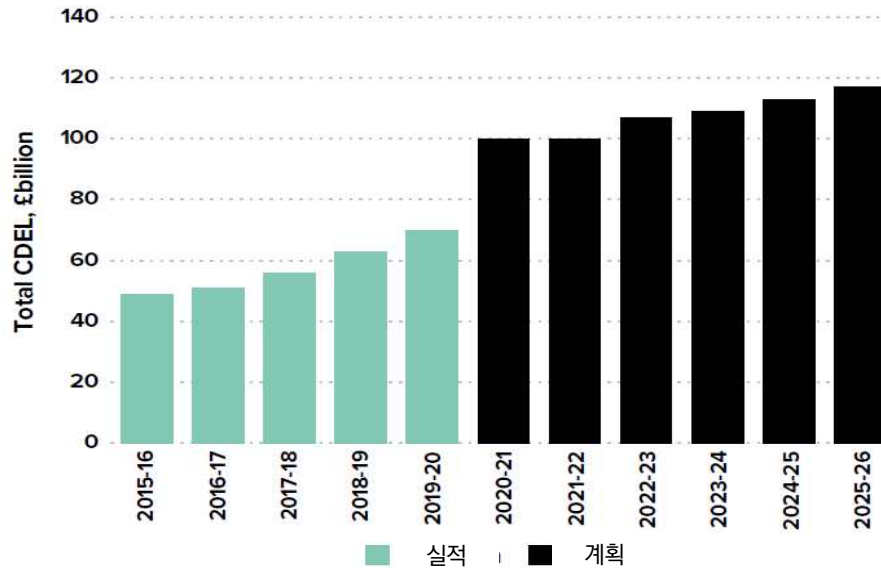
-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는 2019~2020년은 704억 파운드에서 2020~2021년은 1,063억 파운드로 51% 증가함.
- 내년 1,004억 파운드에 달하는 자본지출의 경우 광대역, 도로, 철도 및 도시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임.

■ 2021~2022년 1,004억 파운드, 2022~2023년 1,073억 파운드, 2023~2024년 1,091억 파운드, 2024~2025년 1,128억 파운드, 2025~2026년 1,174억 파운드로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증액시킨 후 지속적으로 증가를 계획함.

10) 영국의 예산은 지출통합관리제도(Total Managed Expenditure : TME)에 기반하여 부처별 지출한도액(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 DEL)과 매년 관리지출액(Annually Managed Expenditure : AME)으로 구분되며, DEL과 AME는 각각 다시 경상지출(Resource Budget)과 자본지출(Capital Budget)로 분류됨. CDEL(capita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은 인건비 등과 같은 경상지출을 제외한 부처별 지출 한도로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액임.



〈그림 11〉 영국의 총부처별 자본지출 한도



자료 : HM Treasury.

❖ 영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학교, 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 균형발전, 녹색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함

- 인프라 투자 확대는 신규 '국가 인프라 전략',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은행 설립<sup>11)</sup>, 인프라 제공 방식에 대한 종합적 개혁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신규로 48억 파운드 규모의 지역사회 지원 기금(Levelling Up Fund)을 도입하여 지역 인프라 투자 및 경제회복 지원을 계획함.
- 녹색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Ten Point Fund 프로젝트에 120억 파운드 투자를 계획함.

#### (4)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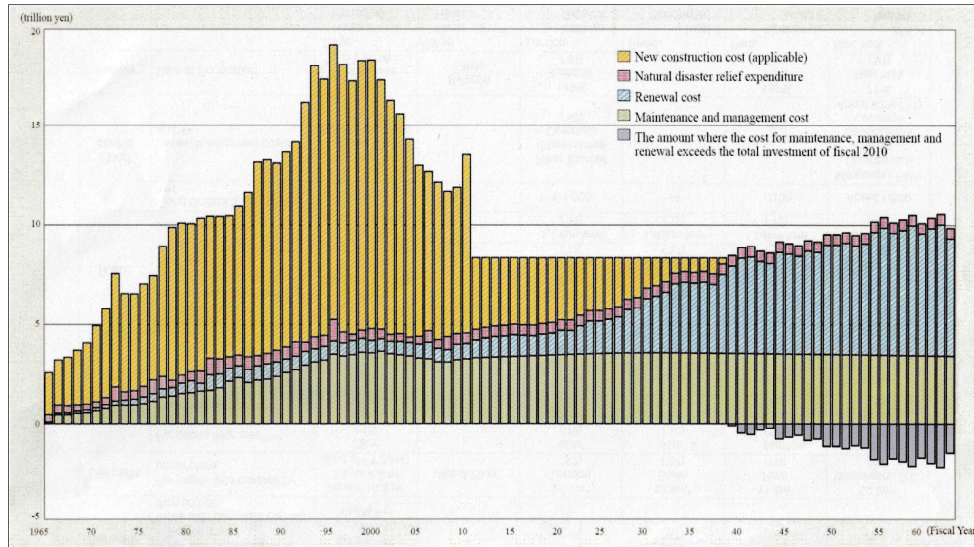
❖ 일본의 사회간접자본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본 SOC의 신규건설 투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 추세임.

❖ 경과 연수가 50년 이상 된 노후 SOC 시설의 급속한 증가로 유지보수 비용은 2010년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SOC 건설과 유지보수에 약 한화 70조원 정도가 투자되며, 2030년경이면 유지보수 비용이 신규 건설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11) 영국 인프라 은행의 최대 자본 및 부채 규모는 120억 파운드에 달하며, 최대 보증 규모는 100억 파운드로 계획함.

〈그림 12〉 일본 SOC 신규투자 및 유지보수 추이



자료 : 국토교통성(2015), Priority Plan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재인용 기획재정부(2017, p.96), 「주요국 사회간접자본 성과평가제도 분석 및 국내 정책적 시사점」.

(5) 시사점

❖ 해외 주요국들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투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1956~2017년 기간 동안 SOC 예산은 연평균 6.3%씩 증가하였으며,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음. SOC 예산의 GDP 비중은 연평균 2.58% 수준을 보임.
- SOC 예산에서 유지관리 투자 비중은 미국은 1978년 이후 50%를 넘어섰으며, 일본은 유지관리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SOC 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함.

- 미국은 구제금융(American Rescue Plan) 패키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22.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영국 또한 자본지출 한도를 51% 증가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증가 계획을 발표함.
- 영국은 지난해 경기침체 예방과 일자리 보전,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을 시행하면서 2,800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을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올해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하면서 SOC 투자를 확대함.

### 3.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경제 성장 모형은 경제 제도 및 생산기술, 인구, 기호 등에 대한 경제의 정량적 분석 기법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 가격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행됨.

- 즉, 한 단위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 및 노동의 단위 수는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분석하며, SOC 투자에 대한 경제 성장 기여분을 자원 활용 측면에서 분석함.

#### (1) 이론적 배경

내생적 모형은 국가 간 지속적인 성장률 격차를 모형의 내생적 변수 간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 데 사용함.

- 소비자의 생애 효용함수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SOC 스톡 수준 및 GDP 대비 투자 비율을 도출함(표 7) 참조.<sup>12)</sup>
-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06, 2012)은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적정 SOC 스톡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됨.

#### (2) 분석의 가정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을 통해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각종 선행연구 및 주요 기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함.

- 류덕현(2008, 2012), 한국교통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10) 국토교통부(2016)의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SOC 구축물의 산출탄력성 0.255를 적용함.
- SOC 감가상각률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와 같이 2%를 가정함(국토교통부, 2016, p.72).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실측치를 사용하였으며, 2021년, 2022년은 한국은행 전망치를 사용함. 적정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경제성장률의 범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5%이고 한국은행은 2021년과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0%, 2.5%로 전망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하한과 상한을 2.5%와 3.0%로 가정함.

12)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출은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를 참조.

〈표 7〉 내생적 성장모형을 활용한 적정 SOC 투자규모 추정

소비자의 효용함수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SOC 스톡 수준 및 GDP 대비 투자비율을 도출함.

$$\text{소비자 효용함수 : } V = \int_0^{\infty} \frac{c^{(1-\sigma)} - 1}{1-\sigma} e^{-\rho t} dt,$$

$$\text{생산함수 : } y = k^{\alpha_k} kg^{\alpha_{kg}}, \alpha_k + \alpha_{kg}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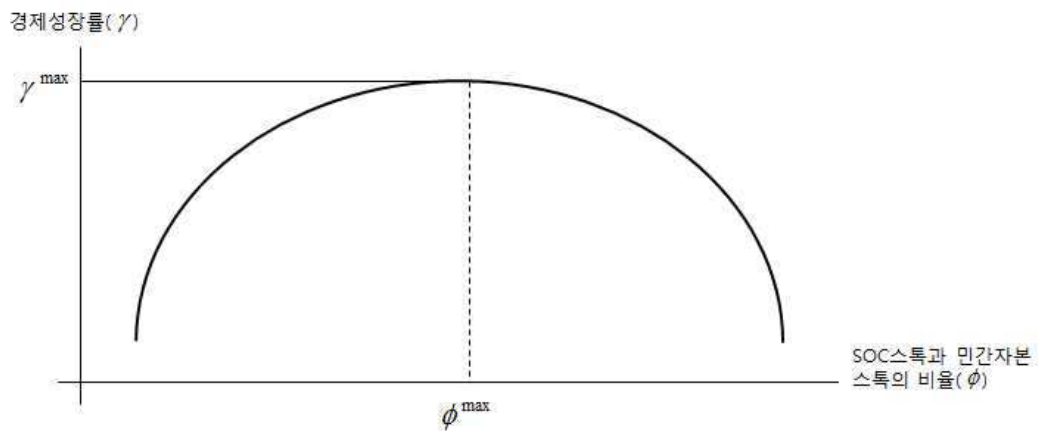
y : 산출, k : 민간자본, kg : SOC 자본,  $\phi = \frac{kg}{k}$ ,  $\alpha_k, \alpha_{kg}$  : 민간자본과 SOC의 산출탄력성

$$\text{균제상태의 균형성장률 : } \gamma = \frac{1}{\sigma} [(1-\theta)(1-\alpha_{kg})\phi_{kg} - \rho]$$

$$\phi^{\max} = \frac{\alpha_{kg}}{(1-\alpha_{kg})^2}$$

$\phi^{\max}$  :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SOC 스톡과 민간자본 스톡의 최적 비율

$\alpha^{kg}$  : SOC 스톡의 산출 탄력성



$$\text{최적 성장률 달성을 위한 SOC 스톡 비율 : } \frac{kg}{y} = (\phi^{\max})^{1-\alpha_{kg}}$$

kg : SOC 스톡, y : 국내총생산(GDP)

$$\text{최적 성장률 달성을 위한 투자비율 : } \left(\frac{ig}{y}\right)^{\max} = (\delta + \gamma)(\phi^{\max})^{1-\alpha_{kg}}$$

ig : SOC 투자, y : 국내총생산(GDP),  $\delta$  : 감가상각률,  $\gamma$  : 경제성장률,

$$(\phi^{\max})^{1-\alpha_{kg}} : [\text{SOC 스톡/GDP}] \text{ 최적비율}$$

자료 : 박수진(2017).

▣ 정부의 SOC 투자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 등의 계획치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SOC 투자 예산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이 선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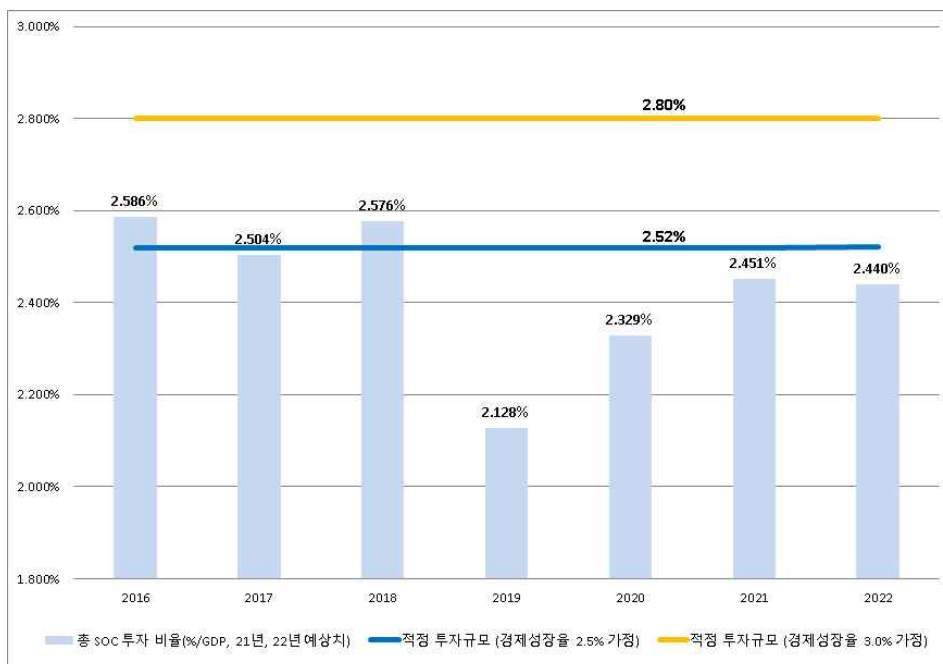
- 중앙정부 SOC 예산은 국회 확정 예산을 사용하였고 2022년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반영함.
- 지방정부 SOC 예산은 지방재정 세출예산에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반영하고, 2022년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연도별 투자집행 내역을 사용하여 최근 5년 추세를 분석하고 2022년까지 시계열을 구축함.
- 민간투자사업은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 현황의 추세를 분석하여 그 결과치를 2022년까지로 확장함.

(3) 2022년 적정 SOC 투자 규모

▣ 경제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됨(〈그림 13〉 참조).

- SOC 투자 수준은 2019년부터 적정 투자 규모 추정치의 하한인 GDP 대비 2.52%에 못 미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역시 적정 투자 규모 하한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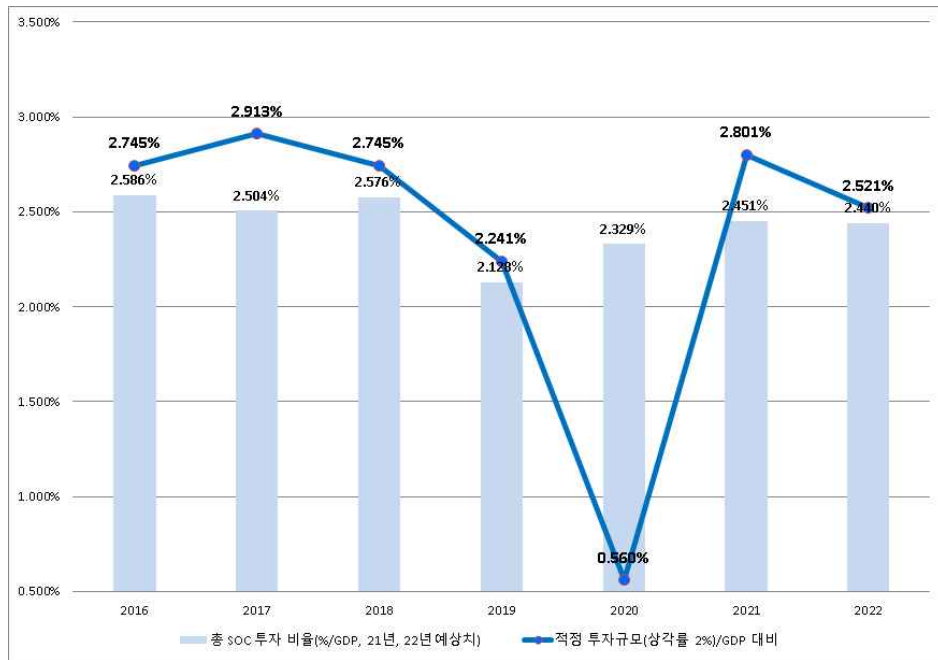
〈그림 13〉 적정 SOC 투자 규모(추정) 대비 SOC 예산 비교(경제성장률 2.5~3.0% 반영)  
(단위 : %/GDP)



2016~2020년까지의 실제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0.56~2.913% 수준으로 분석됨(〈그림 14〉 참조).

- 2020년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적정 SOC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외의 기간은 2.2~2.8% 수준으로 분석됨.

〈그림 14〉 적정 SOC 투자 규모(추정) 대비 SOC 예산 비교(실측치 경제성장률 반영)  
(단위 : %/GDP)



2021년과 2022년 적정 SOC 투자 비율은 경제성장률 2.5%에 도달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비율(2.52%)을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에도 하회하고 있음(〈그림 13〉, 〈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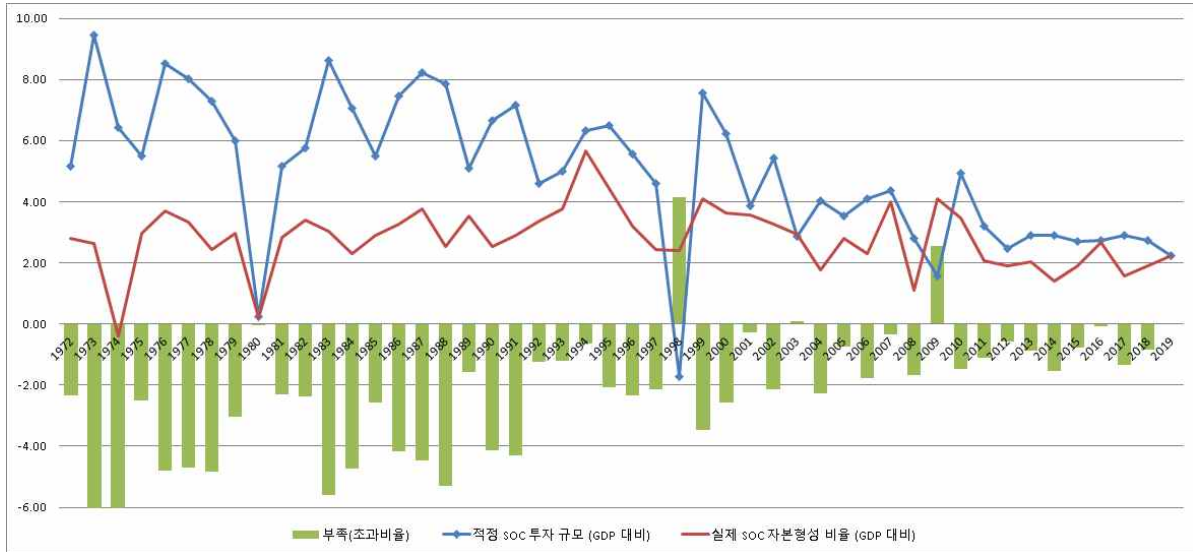
1972~2019년까지 적정 SOC 투자 규모 추정치와 일반 정부 부문<sup>13)</sup>의 실제 SOC 자본형성 비율과 비교시 지속적으로 과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준임(〈그림 15〉 참조).

- 박수진(2017)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 수요와 이론적으로 추정된 적정 투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재투자 수요, 즉 회계적 관점에서의 감가상각비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1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포함 ; 국민대차대조표(2018)를 바탕으로 한 추계치.

〈그림 15〉 적정 SOC 투자 비율(추정)과 실제 자본스톡(GDP 대비 비율) 형성 비교(1972~2019년)

(단위 : GDP 대비 %)



자료 : 한국은행(2018) '국민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추계함.

2021년과 2022년 분석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표 8>과 같음.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3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예상 지출 금액보다 약 1.7조원의 추가적인 SOC 투자가 필요함.

- SOC 투자의 2022년 예상 지출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0.9조원 수준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2.6조원으로 예상 지출 규모 대비 1.7조원이 부족한 수준임.
- 2022년 경제 전망이 한국은행 전망치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 분석되었으며, 경제가 그 이상 등락할 경우, 연간 적정 SOC 투자 규모도 증감할 수 있음.
- 미국의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연평균 2.58% 수준으로, 추정된 우리나라의 적정 SOC 투자 비중은 적절한 수준이나, 미국 SOC 예산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상하수도 등 예산의 합으로 우리나라의 SOC 예산 대비 지역개발, 산업단지 등이 불포함되어 있어 다소 과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표 8〉 SOC 지출 과부족 규모 분석 및 추정

(단위 : 십억원)

회계연도	A.적정 지출 규모 (전망치 반영)	B.예상 지출 금액(=a+b+c+d)				E.과부족 금액 (=A-B)	
		a.정부 지출 (국가재정 운용계획)	b.지방정부 지출 (예측)	c.민간투자 지출 (예측)	d.공기업 투자 지출 (예측)		
2021	56,224	49,190	26,500	14,489	1,538	6,663	-7,034
2022	52,575	50,883	27,800	14,692	1,560	6,831	-1,692

## IV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 1. 2022년 SOC 예산 규모

- ❖ 지난해 4차례와 금년 1차례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낮은 소비지출과 높은 실업률 수준을 보여 전략적인 SOC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정부는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총 81.7조원 규모의 방역 및 민생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소비는 위축되어 있으며, 고용 부진과 더불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짐.
  -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 재정투자의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미래를 도모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
  
- ❖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52%로 약 51조원임. SOC 투자 예상 금액과 비교하면 약 2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연평균 2.58% 수준임. 지역개발,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 SOC 예산 범위를 감안할 경우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는 다소 과소추정됨.
  
- ❖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최소한 30조원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재정운영계획상 2022년 SOC 투자 규모는 27.8조 수준으로 적정 SOC 투자 부족분 2조원을 감안하면 30조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함.
  
- ❖ SOC 투자는 크게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인프라 투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 투자 2가지 부분에서 다각적, 종합적, 거시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미래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 인프라의 발굴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함.
  - 기후 변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국민의 일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지관리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2. SOC 재정투자의 과제

### (1)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SOC 투자

-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한 사업들은 건설투자 효과가 지역 건설업체의 생산과 더불어 관련 건설업종의 생산 및 고용 확대의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남.
- 특히, 교통 인프라는 수송비를 절감하여 상품의 공간적, 시간적 효용을 높임.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역 간의 연결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표 9〉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 가능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비고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 - 340km, 복선전철 - 총사업비 8.5조원 규모	
여수-남해 해저터널	- 경남 남해군 서면과 전남 여수시 신덕동을 연결하는 사업 - 해저 부문 4.2km와 육상 1.7km, 접속도로(1.4km)를 합쳐 전체 7.3km, 총사업비는 5,040억원 규모 - 4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가 번번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받고 답보상태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 남북7축, 동서9축과 더불어 국가 간선 도로망인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 - 이 구간을 지나가는 11개 시·군 가운데 성장촉진지역이 8곳, 지역활성화지역이 3곳 해당 - 총연장 406km(강원 양구~부산) 가운데 1969년 경북 영천~부산까지 96.5km를 개통한 뒤 309.5km는 잔여 구간으로 남아 있으며, 국토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에 반영이 되었으나 장래 추진으로 분류해 놓아 진척이 없는 상태 - 총사업비는 5.1조원 규모	

■ 이 외 학교에 학교시설과 생활 SOC<sup>14)</sup>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학교는 수영장, 체육관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생활 SOC 공급을 위한 적정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지역민은 다양한 문화·스포츠시설 확보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14)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함. 생활 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함. 주요 시설물로는 기초 인프라(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 등이 있음.

(2)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 투자

- 지난해 집중호우, 풍수해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함.
-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인데 도로횡단 안전시설의 부족, 보행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교통시설 설치가 사고의 주된 원인임.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전망으로 이들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10〉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비고
상동~수동 간 터널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가평군 상면 연하리</li> <li>- 연장(L)=10.9km, 폭원(B)=12.5m</li> <li>- 위험도로 개량(선형개선 및 불기고개 터널화)</li> <li>-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li> </ul>	
항사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 높이 50m, 길이 140m 댐 건설(유역면적 6.8km<sup>2</sup>, 저수면적 0.286km<sup>2</sup>)</li> <li>- 총사업비 807억원 규모</li> </ul>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정읍~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li> <li>- 연장(L)=53.0km, 2차로 시설개량(교량 26개소, 터널 10개소)</li> <li>- 총사업비 5,452억원 규모</li> </ul>	
봉화~봉성~재산 도로 개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봉화군 재산면 남면리</li> <li>- 노후되고 위험한 도로에 대한 개량사업</li> <li>- 도로개량 및 정비 L=37.2km</li> <li>- 총사업비 712억원 규모</li> </ul>	

염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